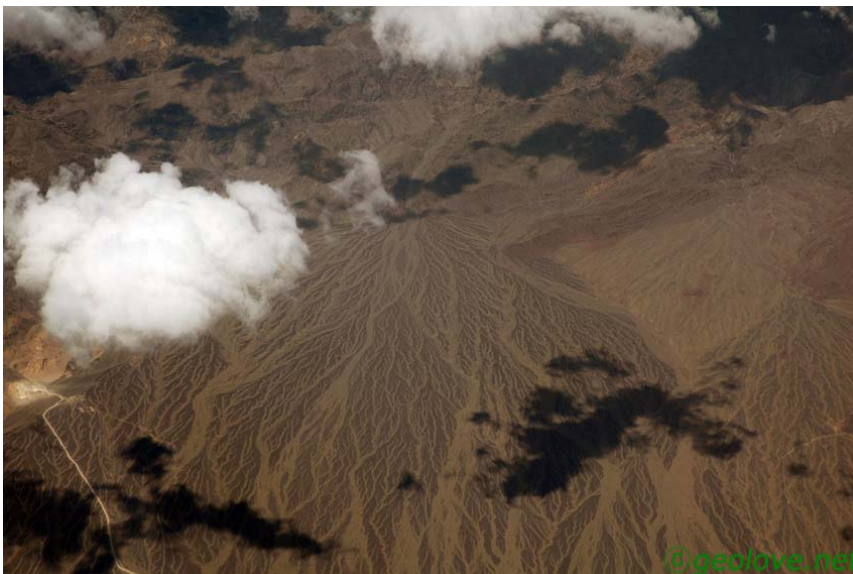


그렇게 평평한 땅에 만들어진 공항은 처음인 듯하다. 방콕 공항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평선이 멀리 보이게 평평한 땅은 처음인 듯하다(사진). 위스키 몇 병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탑승이다. 비행시간이 두 시간 반쯤인데, 기내식을 주었다. 서역에서 처음 맞은 점심을 정찬으로 거의 배가 터질듯하게 채웠건 만 그래도 기내식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게 스스로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필자는 여행할 때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는 것도 거의 철학에 가깝다. 도무지 다음 끼를 못 먹을 것 같지만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항상 언제 그랬냐는 듯 포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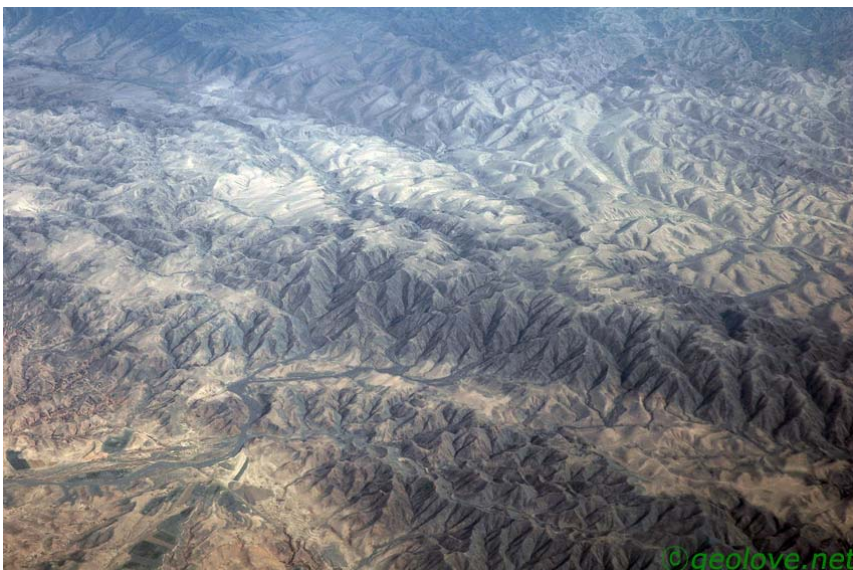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습은 기대가 컸다. 우즈베크로 가는 비행기에서 찍었던 사진이 훗날 책을 낼 때 요긴하게 쓰인 적이 있다. 오늘도 그런 기대를 하였



다. 막 도시를 벗어나면서 오른쪽으로 선회할 때 보이는 모습은 우리의 농촌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경지 정리가 잘 된 들판이었다(사진).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니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초록인 곳과 누런 곳이 금방 구별되기 시작하였다(사진). 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이다.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들어서니 발달하고 있는 적운 천지이다(사진). 곧이어 그것이 적난운으로 발달하기도 하였다. 그 틈으로 지표면이 드러난다. 망류하천이다(사진). 하천이라고 하기에 는 그렇고 하도이다. 망류하천은 유량에 비하여 토사 운반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 발달한다고 한다. 필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전공이 아니니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잘 못 본 것이건 맞게 본 것이건 간에 그저 신기한 것은 분명하였다. 어제 밤의 수



면 부족으로 눈이 아파오기도 하였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비행기가 드디어 황토고원에 들어선 모양이다(사진). 저것을 악지(badland)라고 하는구나. 나중에 학교에 와서 책을 찾아보니 악지가 맞다. 우곡이 무수히 파여 불모지로 변한 땅을 악지라고 한다고 쓰여 있다.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마치 중학교 1학년쯤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10년 쯤 전에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애먹였던 기억이 있다. 창문을 닫으라는데, 나는 닫을 수 없었다. 밖에 보이는 것이 시베리아 벌판이라는데 어떻게 문을 닫으란 말인가. 그때 일본항공 승무원이 꽤나 필자를 췌려보았던 것을 기억한다.



말 그대로 악지였다. 어디를 보아도 쓸만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저기서 만들어진 황진이 우리나라를 덮는다니! 나중에 비행기에서 내린 후 가까이 가보니 입으로 불기만 하여도 먼지가 하늘로 치솟을 듯 하였다. 잠시 황토 위에 올라선 것이 마치 밀가루더미를 지나는 듯하였다

(사진). 그러니 비가 내리면 그대로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마르면 바람에 날리고. 목이 약한 필자는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악지도 만들어지고 황하도 만들어지나 보다.

정말 신기하게도 조금만이라도 평평하여 물을 댈 수 있는 골짜기는 영락없이 초록색이다



(사진). 높은 곳에서 보면 마치 벌레처럼 보일 정도이다. 그 좁은 골짜기에서 황토와 싸우면서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필자 같은 사람은 제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실심한다. 먼지에 알려지 반응을 보일 정도인



필자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이다. 비행기를 내려 가까이 가보니, 그런 곳에서 미농사도 하고 옥수수도 키우고 과수원도 하면서 그리고 토굴도 파고 깎아지를 듯한 절벽에 집을 짓고 잘 살아가고 있다(사진). 모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마련이니, 필자라 해도 팔자러니 하고 살아갔을 것이다.



그들은 그 악지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가능한 곳은 어디든지 그런 땅에 나무를 심고 있는 것 같다(사진). 우리나라에서 산에 임도를 만들 듯, 또 와리 모양의 길을 내면서 산에 산에 나무를 심고 있다. 이 산에도 메아리가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저게 성공해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나라에도 봄철에 황사가 좀 덜할 텐데. 남의 일로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나무 몇 그루라도 보내고 싶다. 사실 가까이에서 보니 나무를 심은 것인지 막대기를 박아 놓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된다. '저게 나무라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그 나무가 살

아나는 모양이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나무 키우는 노하우가 있는 모양이다. 필자의 눈에 보이는 나무가 한국이었다면 분명 생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저게 살아 나길래 저렇게 심고 있겠지.



이제 난저우 공항이다. 공항에서 난저우까지는 100km쯤은 되는 것 같다. 고속도로를 한 시간 넘게 달렸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 말인가? 연평균 강수량이 200mm도 안되는 난저우에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린다. 우릴 환영하는 것인지,

초를 뿌리는 것인지? 그래봐야 그 비는 5분을 넘기지 못한 것 같다. 어떤 이는 사막에서 비를 만났다고 그 일행 모두가 기뻐했다고 난리인데, 필자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니 사막이면 사막다워야지. 모두 지리학인데. 참 이상하였다. 그렇지만 그 교수는 아주 기뻐하였다. 그 귀한 비를 만났다고. 역시 인간은 여러 가지인 모양이다.

공항에서 난저우로 가는 길은 황토고원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였다. 공항이 있는 곳의 해발고도가 2,000m쯤 된다. 그러니 우리는 고원 상에 있는 것이다. 황토고원을 처음 접한 우리는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지가 펑펑 날리는 황토, 토굴, 툼툼이 박아놓은 나무, 그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 등등.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문제는 왕인 버스 기사가 차를 세워주지 않는다. 충분히 세워도 되겠지만 엄청 벌금을 무서워하였다. 애를 태운 끝에 잠시 선다고 한 주유소에서 우린 충분한 시간을 썼다. 물론 송씨도 뭐라 하지 않았



다. 처음 만져 보고 느끼는 황토. 그냥 밀가루(흙가루)였다. 밟으면 날리고 건들어도 날리고, 스쳐도 날리고 그저 힘난 주어지면 날렸다 (사진). 그런 곳에서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제 10여분 후이면 난저우이다.